

신
년
시

눈부시나니

겨울은 낮고 낮아서
눈은 지상으로 내리고
바람은 틈을 찾아 불어온다이 시간이 기다리는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순명의 시간이라면하늘은 높이 있으라
땅은 멀리 있으라누구는 사랑을 위하여 울고
누구는 운명을 위하여 울고기도하는 자의 두 손은 따뜻하나니
기도하는 자의 태양은 눈부시나니겨울은 낮고 낮아서
얼음은 지상에서 자라고
눈꽃은 바위틈을 찾는다이 시간이 기다리는 순간이라면
이 순간이 순명의 시간이라면나에게 오라
머뭇거리지 말고 오라
사랑하는 이여기도하는 자의 두 손은 따뜻하나니
기도하는 자의 태양은 눈부시나니

시: 김재홍(관리) 시인·문학평론가, 신년시 삽화: 박명호(편제)



긍정적인 밥

“시 한 편에 삼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중략)

함민복 시인의 <긍정적인 밥> 한 구절입니다. 산통을 겪고 태어난 시 한 편이 삼만 원하던 시절, 들인 공이 얼마인데 생각하면 분한 생각도 들겠지만 “쌀 두말”로 환치하는 작가의 뉘앙스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허겁지겁 화장을 고치는 젊은 여성을 보며 “참으로 칠칠 맞다. 집에서 화장은 하고 나왔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야, 삶이 얼마나 팍팍하면 얼굴 다듬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나도 <긍정적인 밥>이 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한곳에서 한곳을 바라보며 지낸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의 자산이 이념이라는 착각 속에 갇히어 대립하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 살았다는 공명조(共命鳥)라는 상상 속의 새가 있었습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가 달린 공명조는 서로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었다가 결국 둘다 죽고 맙니다. 공명의 공동운명체라는 걸 모르고 사라져 버린 상상 속의 새, <共命鳥>를 교훈 삼아 서로 비방 혐오 증오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기쁨이 깃든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회장 신년사: 장명호, 공명조: 채정수(편제), 제호 리뉴얼: 정은숙(편제)

music

음악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음악인을 지킵니다, 음악을 지킵니다.

수십년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준

“K컬처의 중심, K뮤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KOMCA의 역할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그날, 사우 355명이 다시 만났다

2024년 12월 5일, MBC사우회 송년의 밤 열려

‘2024 MBC사우회 송년의 밤’이 12월 5일(목) 열렸다. 지난해 개최 장소였던 63빌딩 컨벤션 센터가 리모델링 중이어서 ‘아모리스 역삼’으로 장소를 옮겼다. 참가자는 박기병 전 춘천MBC사장을 비롯하여 신입회원 남궁찬 등 355명이다. 만찬을 겸한 이번 행사에서는 MBC와 관련된 장소에 깃든 추억을 바탕으로 구성한 동영상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만났다.”를 선보여 참가자들의 추억을 일깨웠다. 문화방송이 개국한 지 63년, 인사동 동일가구 건물에 세들어 AM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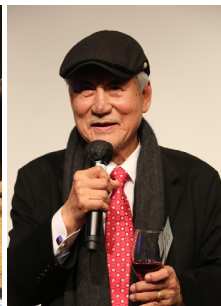
디오로 출발한 MBC는 정동, 여의도를 거쳐 상암동에 이르는 동안 TV시대, 멀티미디어 시대, 디지털 시대를 줄곧 선도하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업계의 선두주자로 성장해왔다. 사우회원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애환이 함께 한 그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지난 3개월 동안 사우들이 직접 촬영, 편집, 구성했다. 아울러 본사에서 제작한 ‘올해를 빛낸 MBC 프로그램’ 동영상을 시청하며, MBC의 발전을 기원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우회에서 2024년에 개최한 행사를 소개하고, 송년회를 준비하는데 봉사한 사우 이름을 부르며 노고를 치하했다. MBC 사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MBC에서 2024년에 이룩한 성취와 새해 계획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그 바탕이 된 선배들의 수고에 감사했다. 다음 순서로 노영일 전 원주 MBC 사장과 강성구 전 사장이 건배 제의했다. 건배주는 장덕수이사가 운악산 자락에서 재배한 포도로 직접 담근

포도주 50병을 기증하여 이를 사용했다. 이어서 현직에 근무할 당시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로 화면에 비추어지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우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담소를 나누며 만찬이 진행되었다. 오후 7시경 고창군 사회자가 행사 폐회선언을 하였지만 이 후에도 한동안 많은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행사의 여운을 즐기다 산회하였다. 모든 참가자에게 MBC 다이어리, 성심당 빵을 선물했다.



송년회 접수



송년회 건배 강성구, 노영일



축하 케익 커팅



송년회 영상 스태프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만났다.” 동영상



김태홍(기술) 회원이 소개하는 상암동 사옥 동영상



<https://vo.la/pKbCLg>

<https://vo.la/todKIq>

이석일 회원이 기록한 송년의 밤 사진



<https://photos.app.goo.gl/WZrtc9PQPr61sfVc8>

박영태 회원이 기록한 송년의 밤 사진



<https://photos.app.goo.gl/sEVt9xBffvAsAmT7>

동영상, 함께 만들었습니다

송년의 밤 행사 준비 회의에서 장명호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즐길 이야기로 동영상을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인사동에서 상암동까지, MBC의 성장사를 영상으로 담아보자는 아이디어였다.

인사동, 정동, 여의도 시절의 사진과 영상 자료는 영상편집자가 수집하고, 부족한 부분은 본사 아카이브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상암동 시대는 김태홍 회원이



제작한 영상을 편집해 소개하기로 했다. 이재은 이사는 인사동과 정동, 여의도 주변을 촬영해 자료를 제공했고, 대본은 인사동은 김옥균, 정동은 장명호, 여의도는 오명환 회원이 각 시대를 맡아 집필했다.

타이틀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만났다”는 캘리그래피 작가 박명호 회원의 작품이었다.

아나운서 강영은 회원이 문구를 손질하고, 김상옥 부회장의 연출 아래 녹음을 완료했다. 최종본은 행사에서 상영될 준비를 마쳤다. 처음에는 가능할지 의문이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이 더해져 훌륭한 결과물이 탄생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봉사라니요? 뭐, 행사장서 명찰 달아드리고, 회비 받고 별거 아니었어요, 이은숙, 박미숙 강지현이랑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우들 만나 같이 일하다 보니 즐거웠어요. 시간이 되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으니까, 연락해 주세요. 좋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숙(관리)

“참가자 접수는 일과 선물 분배를 도왔지요. 저는 98년에 명퇴한 뒤로, 사우회 행사 때마다 봉사했습니

다. 올해는 여성 사우들이 같이 접수를 도와주면서, ‘오빠’, ‘아버님’ 하고 불러서 분위기가 좋았지요.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전용립(관리)



올해는 사우회 동호회와 함께

희망의 새해, 행복한 삶을 위하여



고전동호회 회장
양진수

화복의복(禍福倚伏)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자도덕경에 나오는 것인데 본문에는 화혜복지소의(禍兮福之所倚) 복혜화지소복(福兮禍之所伏)입니다.

직역을 하면 “화(禍)는 복(福)이 기대어 있고, 복(福)은 화(禍)가 숨어 있다”입니다. 재앙이라고 해도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복이 오게 마련이고, 복이라고 너무 자만하면 재앙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사우회원들께서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조금만 견디면 좋은 일이 바로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선용병자불이단격장이이장격단(善用兵者不以短擊長而以長擊短)이라는 글이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오는데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단점으로 장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단점을 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장점을 잘 살려 나간다면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 ‘한문동호회’의 이름을 ‘고전동호회(古典同好會)’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금요일에 한문기초반을 신설합니다. 사자소학(四字小學)으로 한자 쓰기를 비롯하여 한문의 기초가 되는 4글자 문장부터 익히는 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권혁화 총무 010-3739-0889)



바둑을 두면 얻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바둑동호회 회장
이진섭

바둑을 두면 다섯 가지를 누릴 수 있다. 위기오득(圍棋五得)이다.

첫째, 득호우(得好友).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바둑을 수담(手談)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손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뜻으로 한판의 바둑을 두려면 최소한 30분 이상을 마주 앉아 대국하는데 어찌 좋은 친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둘째, 득심오(得心悟). 오묘한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 바둑은 승패를 다투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데 그 과정에서 지혜를 찾게 되니 절로 삶의 이치를 터득하게 된다.

셋째, 득인화(得人和).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다. 바둑판 앞에서는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인종과 국적도, 그 어떤 것도 차별 없이 동등하게 흑과 백으로 마주 앉게 되니 저절로 인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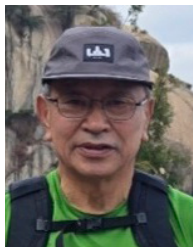
넷째, 득교훈(得教訓). 바둑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한판의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자신이 둔 한판의 바둑을 되짚어 보며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깨닫게 되고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자각함으로 진보를 이룰 수 있음은 인생 살이와 마찬가지로 이다.

다섯째, 득천수(得天壽). 바둑을 두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 백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인데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게임이 바둑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바둑동호회 회원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 이미 바둑을 배워 알아 젊은 시절 함께 고락을 같이했던 사우들과 자주 만나 바둑을 즐기고 있으니!

2025년엔 더욱 많은 사우들이 모임에 나와 위기오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나오면 건강해집니다



산악동호회 회장
최정일

산은 계절마다 맛이 다릅니다. 봄에는 봄꽃이 예쁘고, 여름에는 녹음이 시원합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보기 좋지요. 같은 산도 오를 때마다 맛이 달라집니다. 서울 주변에는 세계에서 드물게 명산이 많습니다.

MBC 사우회산악회에서는 서울 주변의 명산과 둘레길을 찾아다닙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산, 북악산, 불암산, 관악산, 대모산 등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가을 MBC사우회 회원들과 같이 갔던 우면산에는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와사보생(臥死步生).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말이지요.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 산행은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안전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합니다. 80대 회원 중에서는 김병문, 이경재, 최영복 사우가 늘 함께하는데요, 산을 꾸준히 다니시는 분은 다 건강해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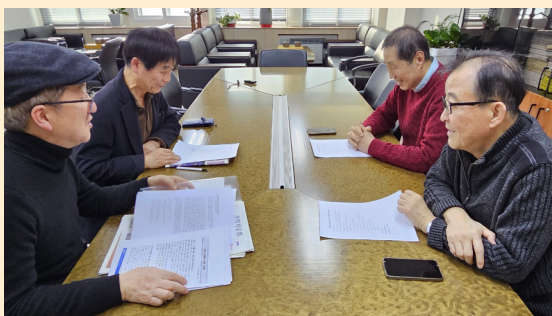
집안에서 갇혀 지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산행하면서 간식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면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해 집니다.

올해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울 근교산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특히 봄에는 모처럼 남한산성에 갈 예정입니다. 사우 여러분께서 같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집장을 맡으며

‘기쁜 고생길’에 들어섰다는 덕담만이 아닌 덕담을 들었습니다. 선임 김상옥 편집장의 옆모습을 지켜본 제 눈으로는, ‘고생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깊이 있는 사우회보’라는 말을 듣도록 10여 년 고군분투孤軍奮鬪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두루 부족한 제가 뒤를 이으려니 두렵기만 합니다. 사우 여러분과 류근중, 박상규 두 분 편집위원의 힘을 모아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MBC 송년회 준비 모임에서 고창근 아나운서가 남긴 말을 되새겨 봅니다. “좋은 회사에서 재능을 키우며 동반 성장했으니, 사우회 봉사는 마다할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은 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보 편집회의, 왼쪽부터 편집장 김승일, 편집위원 박상규, 류근중, 전) 편집장 김상옥

오늘의 캘리

기쁘게 여독을
비운다, 지내야
새벽의 종소리

-헤르만 헤세 위르겐스 룬델로트-

박명호 (편제) 한국캘리디자인협회 감사, 저서 『캘리아 놀자』



글로벌이 열광하는 IP 허브를 향한 MBC의 무한도전 방송사를 넘어 토털 콘텐츠 생산기지로

안형준 사장,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확장 전략을 말하다

MBC 사우회보 신년 특별대담 MBC사장 안형준

2025년 새해 첫 인터뷰 대상자를 안형준 MBC 사장으로 정했다. 그는 최초로 150명의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장이다. 사장실에 들어서니,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맞아 자리를 안내한다. 10인용 회의 탁자에서 의장석을 비워 둔 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앉았다.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에 이은 시청률 1위

– 최근 TV 시청률이 높게 나왔다면서요.

“4월 총선 정국에 MBC <뉴스데스크>가 지상파 메인뉴스 가운데 시청률 1위를 차지했고, 8월 올림픽 기간에 이어 10월에도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계엄 상황에 서부터 줄곧 시청률 1위였던 <뉴스데스크>는 탄핵 가결 당일 시청률 11.66%로 두 자릿수가 나와 지상파와 종편 메인뉴스 가운데 시청률이 가장 높았지요. MBC가 신뢰도 1위, 영향력 1위, 열독률 1위에 이어 시청률 1위 채널로 안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라디오 청취율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MBC라디오 <뉴스하이킥>과 <시선집중>이 나란히 2024년 3라운드 청취율 조사에 이어 4라운드 청취율 조사에서도 전체 라디오 청취율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나란히 1위, 2위를 차지한 것은 청취율 조사 이

래 최초라고 합니다.”

– 정치적 격변기를 맞아 방송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하여서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외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로

유일한 5년 연속 흑자

–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22개월 동안 이룬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외부적으로는 MBC 장악 세력에 맞서 싸우고 내부적으로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경영 실적을 높이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급격하게 식어버린 광고와 유통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이프'와도 오랜 서먹함을 풀어내 MBC와 하이브 아티스트 간의 교류를 복원시켰고, 드라마와 예능이 성공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 방송사로 유일하게 5년 연속 흑자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우회 선배들이 도움

'김수현 작가와 화해'

– '조계종과의 오랜 갈등을 해결한 것'도 꼽던데요.

“그렇습니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타 드라마 작가, '김수현 작가와 화해'입니다. 화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우회 선배들이 많이 도

지상파를 넘어 세계로 혁신과 도전의 2025 MBC



인도 정보방송부와 미디어사업 논의



중동UAE 아부다비GMC(글로벌미디어공그레스)에서 미디어 관계자 협의

와주셨어요.

<저 눈발에 사슴이>라는 라디오 드라마를 처음 연출했던 김포천PD 선배께서 김수현 작가에게 전화를 넣었고, 김상욱 사우회 부회장도 옆에서 지원했습니다. 우리 드라마 본부라든가 저도 계속 직접 통화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했지만, 결국은 잘 화해해서 '사랑이 뭐길래' 등 훌륭한 프로그램을 다시 저희가 유통해서 세계인들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우회를 잘 활용한 사장님의 역량이 돋보입니다. 사우회도 MBC 자산으로 쓰일 수 있네요.

“그럼요, MBC에 대한 애정과 로열티가 높으신 선배님들이시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갈 문제

가 있으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MBC 공채 텔런트인 최불암 선생님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 도와주셨습니다. 큰일이 닥치면 사우회 선배님들과 논의도 하고 현명한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MBC의 캐치프레이즈와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IP(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와 신사업을 중심으로 MBC를 고강도 혁신그룹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MBC그룹은 '글로벌이 열광하는 IP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MBC를 방송사를 넘어 토털콘텐츠 생산기지로 진화시킬 예정입니다. 회사에 변화를 가져다줄 새로운 도전에 직원들이 역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콘텐츠 토털 문화체험 공간 사업, 'Project-K'

“2025년은 대한민국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무한도전> 탄생 20주년입니다. 무한도전의 도전정신을 이어받아 엔터, 뷰티, 패션, 푸드 등 각 분야 국내 유수의 기업들과 협력해 K콘텐츠를 공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토털 문화 체험 공간 사업 'Project-K'를 기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케이 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LA 나 뉴욕의 K타운이 아니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한국의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LED 체험관, 그 주변에는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식당, K뷰티를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샵을 세우고요,

그리고 OTT 넷플릭스에서 글로벌 1위를 했던 <피지컬 100>이라는 서바이벌게임은 저희 교양PD가 만든 거였거든요, 외국의 기업이나 기관과 공동제작도 할 것입니다.”

– 어느 나라에서 언제 시작되나요?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4개국과 논의 중인데, 조만간 한두 개 국가에서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MBC의 외부 제작

스튜디오 'MOst 267'

–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과 제작사와 경쟁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기획하는 사업을 소개해 주세요.

“작년 4월, 'MOst267'이라는 외부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MOst는 MBC Original Studio 약자고요, 267은 상암동 지번입니다. 'MOst267'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로는 구상하기 어려웠던 콘텐츠와 IP기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작가, 연출, 웹툰 원작 IP 등 핵심 요소를 가진 외부 파트너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11번 채널에 트는 프로그램만 만들었는데, 11번이 아닌 다른 채널을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죠. 스타 PD, 스타 아나운서들이 시장 논리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일이 많았잖아요. MOst267을 통해서 그분들의 법적 지위를 바꿔서 계속 우리랑 함께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 MBC를 떠났던 스타 PD도 불러들이겠네요.

“MBC 최고 스타 PD였던 분 중 한 분이 타 방송사에 가서 훌륭한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MOst267로 합류하면서 친정 MBC로 돌아왔습니다.”

– 지난해 MBC 창사 기념일 기념

사에서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하셨는데요.

“지금은 선배님 자녀들도 TV로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보잖아요. 광고를 계속 TV 채널로 하겠다고 하는 건 미디어 소비 트렌드를 벗어난 거고, 거대한 흐름을 거꾸로 가는 거지요. 모바일 디지털 위주의 영업과 유통 쪽으로 주력하는 겁니다.”

– 청취자의 미디어 수용 행태가 완전히 바뀌어 젊은 층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장으로서 시청률 일보보다 더욱 관심 있게 보는 것이 MBC 유튜브 뉴스채널의 동시접속자 수와 구독자 수입입니다. 유튜브 정치 시사 조회수를 매달 발표하는데, MBC가 늘 1등입니다. BBC나 NYT를 제치고, MBC가 세계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되던 날에는 MBC 뉴스 유튜브의 동시접속자 수가 하루에 147만 명이 넘어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요즘엔 '2049 시청률'을 중시하는데요, 20세에서 49세 시청자의 시청률이지요. 지난 12월 7일에 2049 시청률에서 뉴스데스크가 5.1%를 기록했습니다. 그전에는 1%대였습니다. '뉴스는 MBC'라는 인식이 젊은 층에 확산하면 예능, 콘텐츠 등 전 범위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올해 MBC가 우선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일까요?

“2025년은 MBC가 대한민국의 지상파 방송사를 넘어서 콘텐츠 중심의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년으로 기록할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방송사는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2024년 MBC창사기념식에서 왼쪽부터 사우회 회장 장명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선아, 사장 안형준,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심미선

중요하고요, 콘텐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콘텐츠 생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모바일 디지털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외압이 커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와 싸우는 데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장으로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수익을 높여 직원들이 더욱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CEO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사우회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 사우회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김수현 작가 관계를 푸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해주신 사우회 선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자문할 일이 있으면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눠주시면 합니다. 선배님들, 날씨가 궂은데 꾸준히 운동하셔서 건강 유지 하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양주문화동산에서 바베큐파티하실 때 제가 다시 찾아뵈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지향하는 리더십을 물었다. ‘서번트 리더십’ Servant Leadership이란다. 인터뷰 내내 의장석을 비워 둔 채 마주 앉은 까닭이 거기 있었다. 실리콘밸리 연수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창의성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나오게 하려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다양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단다.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으로 말한 ‘디지털 영토의 확장의 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대담, 정리: 편집장 김승월



안형준 사장과 편집장 김승월

MBC소식

제1회 좋은친구 'MBC RUN' 개최

MBC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영방송을 함께 지키고 키워온 시청자들과 함께 뛰고 호흡하는 마라톤 대회, '제1회 좋은친구 MBC RUN'을 올 상반기 중 개최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 코스는 5km, 10km, 하프코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기록 인증서를, 마라톤을 달리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년 연속 지상파 방송사 유일 신입사원 채용

MBC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 줄 2024년 신입사원 16명이 입사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경쟁률은 357대 1로, 취재기

자 3명, 영상기자 1명, 스포츠기자 1명, 콘텐츠전략 PD 1명, 드라마 PD 2명, 예능 PD 1명, 시사교양 PD 1명, 방송촬영 1명, CG 분야 1명, 아나운서 2명, 방송경영 2명이 채용됐습니다.

MBC 본사 5년 연속 흑자 예상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시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MBC는 지상파 방송사로 유일하

게 5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MBC 본사의 지상파 광고 점유율은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6월까지 잠정적으로 186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0년 39억 원, 2021년 684억 원, 2022년 566억 원, 2023년 77억 원에 이어 2024년도도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책협력국 오해정 차장

만나면 좋은 맛집



편집위원
박상규(관리)

MBC를 떠올리면 여름엔 귀를 멍하게 울리는 매미소리, 가을엔 남문 분수대 앞 단풍나무가 생각납니다. 직장생활 중 만났던 수많은 동료들. 퇴직 후에도 이런저런 모임들이 이어졌지만, 세월이 지나며 이제는 몇몇 모임만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음식점에서 꾸준히 만남을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 있지요.

별다른 이름 없이 수첩에 적힌 대로 부르는 <4인 모임>. 홍보국 박용

흥, 라디오국 박우성, 김승월, 그리고 자료실의 저. MBC 재직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온 인연입니다. 처음엔 수정상가 생태탕집, 신송빌딩 대구탕집 등에서 만났고, 퇴직 후에는 광화문이나 종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보통 서너 달에 한 번, 또는 부모상이나 자녀결혼, 칠순 등 경조사 후에 만났습니다. 대화 내용은 개인 근황, 건강, 취미, 재취업,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생각 등이고,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며 끝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소박한 분들과의 만남이라 부담이 없고, 헤어지면 아쉬움이 남지요. 그러다 몇 해 전 알게 된 <동강

오래된 인연, 변함없는 맛

‘동강 나루터’에서의 ‘4인 모임’

나루터>(T. 02-775-9331)는 우리의 단골집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에서 직진 30미터 후 좌회전

하면 보이는 이곳은 40여 평 규모에 98석이 마련된 소박한 식당입니다. 주메뉴인 메기매운탕은 부드러운 생선살과 돌미나리 등 신선한 야채가 더해져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하지요. 코로나 시기에도 저녁마다 손님들로 붐빌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 만남의 가장 큰 매력은 가격



왼쪽부터 김승월, 박상규, 박우성, 박용흥

입니다. 1인당 2만 원으로 식사와 커피까지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우리는 장소 고민 없이 약속이 잡히면 자연스레 동강 나루터로 향하게 되었지요.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메기매운탕을 생각하니, 이곳에서의 다음 만남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요즘처럼 차가운 날씨에 몸과 마음을 녹이는 메기매운탕 한 그릇이 어떨까요?

경조사항

구순: 한백수(기술) 36.01.22.

팔순: 권윤성(기술) 46.01.19. 차효석(대전) 46.01.25. 장명호(회장) 46.01.30.
정광수(기술) 46.02.04. 김경일(관리) 46.02.13. 오명환(편제) 46.02.15.
황진욱(기술) 46.02.28. 조규보(관리) 46.03.15.

고희: 안호명(편제) 56.02.01. 정태성(보도) 56.02.02. 최문순(보도) 56.02.04.
박노성(관리) 56.02.04. 하동근(보도) 56.02.05. 채애림(관리) 56.02.08.
김재형(관리) 56.02.08. 이성호(편제) 56.02.12. 조일수(이사) 56.02.19.
이채원(관리) 56.02.23. 박 종(편제) 56.02.26. 이정준(보도) 56.02.28.
박승기(관리) 56.03.01. 방영희(편제) 56.03.05. 이우용(편제) 56.03.07.
김동수(보도) 56.03.12. 허 운(관리) 56.03.13.

회갑: 이향진(보도) 65.02.01. 권현주(관리) 65.03.03.

결혼: 최조남(관리) 아들 12/07 이상로(보도) 딸 12/21
성경환(ANN) 아들 12/28 진현숙(편제) 딸 12/28
정종국(관리) 아들 01/19 김세홍(편제) 딸 01/19

부음: 정길용(관리) 장모상 11/29 이연재(보도) 모친상 12/03
김동효(편제) 부친상 12/03 이양길(보도) 배우자상 12/05
박중규(관리) 배우자상 12/09 정중희(기술) 장모상 12/19
이선재(보도) 부친상 12/22 김태경(관리) 부친상 12/30
오광택(보도) 모친상 01/02 박정근(편제) 배우자상 1/4

연회비

평생회비: 남궁찬(편제)

공형석(C&I)

2023년: 김휴선(보도)

2024년: 김동성(편제)

김승수(편제)

이재원(전주)

이종현(편제)

이준환(C&I)

한웅희(업무)

2025년: 강철호(편제)

나종석(보도)

방운식(관리)

이건세(편제)

이승문(편제)

이영자(관리)

장영준(보도)

황진욱(기술)

2026년: 김평호(편제)

주소변경 / 신규

편제: 김동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정자동, 파크뷰)

손동용 서울 중구 다산로 32 (신당동, 남산타운)

정은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70 (도곡리, 한강우성아파트)

황기찬 경기 남양주시 호평로60번길 1 (호평동)

보도: 이수향 서울 구로구 중앙로12길 12 (고척동, 센츨리아파트)

관리: 홍명표 인천 계양구 용마루1길 20 (용종동)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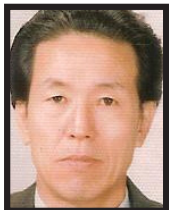
尹鍾玉(관리)

12월 23일 별세. 향년 78세.
1973년 입사. 총무국 차량부 차장대우.
1998년 퇴사.



鄭鎮澈(미주)

12월 23일 별세. 향년 86세.
1964년 입사. 보도국 사회부. 1970년 퇴사,
미국 IBS-TV국장 역임.



李任生(편제)

1월 1일 별세. 향년 91세.
1969년 입사. 라디오국 부장, 제작위원.
1990년 퇴사.

회/원/동/정/

문기회 신임회장에

조기양 전 MBC스포츠 대표이사



보도부문 사우 모임
인 문기회 신임회장에
조기양 전 MBC
스포츠 대표이사가
선임됐다(11월 29

일). 조기양 사우는 1982년 공채로 입사해 2007년 3월까지 보도부문에서 재직하다가 2011년 3월까지 자회사 임원으로 활동했다. 조회장은 인사를 통해 문기회가 선배, 후배, 동료들과 다양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모닥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상근부회장에

정홍보 전 춘천MBC사장



정홍보 전 춘천MBC
사장이 한국전파진
흥협회(RAPA) 제8대
상근부회장으로 선
임됐다.(11월 29일)

정 신임 부회장은 1981년 MBC 기자로 입사해 파리 특파원, 정치부장, 정보과학부장, 사장 특보, 기획국장 등을 거쳐 보도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 2008~2011년 춘천MBC 사장을 지냈다. 한국방송협회 이사, 지역방송협회 공동대표, YTN 사외이사 등을 지냈다.

MBC에서 마주한 계엄의 기억, 사라져 가는 역사의 흔적

OECD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대한민국에서, 2024년에 '계엄령'이 발동되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오늘을 살피고, 오늘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려고 MBC에서 겪은 계엄을 취재했다.

노성대 전 MBC사장(보도)



“80년 계엄 때는 제가 보도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검열하는 사람 1명이 보도국에 나와 있었어요. 검열 지침을 벽에 붙여놓고,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해라, 이런 건 보도 하지 마라. 일일이 간섭했지요. 전혀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언론 검열을 해서 군부가 싫어하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검열에 맞서니까 이틀 후에, 군부에서 저를 잡아갔죠. 남영동 대공 분실 비슷한 데서

1주일 조사받고, 서대문경찰서를 거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나명수(관리)

비상계획부에서 근무했던 80년에 계엄이 있었어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에서 들어와 감독하고 통제했어. 계엄군이 정문에 섰고 장갑차가 와 있었지. TV주조정실, 거기서 통제하며 감독하면서 강하게 지시했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니까. 절대 따라주어야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명령 지시에 불응하면 처리합니다.'

익명 (편제)

“계엄 한 시간 전 쯤, 완전무장한 군인들이 우당탕 들이닥쳤어. 화장실 가려고 나가보면 군인들이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해. 특히 주조정실

앞에 군인들이 딱 서 있었어. 한 시간 뒤쯤, 뉴스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았지. 계엄마다 그랬습니다.”

강홍신(기술)

“살벌했죠, 그때. 정동에서 주조정실 근무할 텐데, 군인들이 정문과 엘리베이터 앞에 총을 딱 들고 서 있었어.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1974년 12월에, 남산송신소 근무하는데, 밤 11시 30분쯤에 누가 철문을 쿵쿵 두드려. 군인 두 명이 총을 들이밀고 들어왔어, '우리는 특전사 송신소 점령훈련 하러 나왔다. 방송을 무조건 꺼라!' 가만 보니 방송을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 오디오를 다 죽이고, TV 모니터를 끄고, “다 껐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살살 달래며, 시간을 끌었지. 한 20분 지나니까, 어딘가 연락하더니 끝났다면

자리를 뜨더라고. 그래서 그날 방송은 무사히 나갔지요.”

증언 남길만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겪은 분들도 기억이 흐려졌다. 실명으로 증언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했다. MBC 관련 계엄 사진을 찾으려고 경향신문에까지 문의 했지만 허사였다. 이렇게 자료와 기억이 사라진 이유를 KBS출신 방송역사학자 김성호박사가 말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계엄이 삼엄한 시대였기 때문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될 수 있으면 다루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세력이 너무 싫으니까, 일부러 외면해서 기억이 사라진 거 같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그렇게 지워져 가고 있다.

발전 기금을 주신 분들(11월 24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정 준(관리)
60만원



장덕수(편제)
50만원



박상규(관리)
30만원



석남수(기술)
30만원



조강래(업무)
30만원



오청엽(관리)
20만원



이원영(기술)
20만원



이창원(관리)
20만원



이한수(편제)
20만원



전용림(관리)
20만원



황진욱(기술)
12만원



고연도(편제)
10만원



金泳日(보도)
10만원



김준원(기술)
10만원



김병택(편제)
10만원



소원영(편제)
10만원



위호인(관리)
10만원



정영희(ANN)
10만원

“젊었을 때 같이 고생하신 분 얼굴도 볼 겸, 사우회에 직접 찾아가 뵈지요. 수입이 적더라도 **고생하는 분 생각해서라도 보태야** 죠. 고맙기는요 뭘, 여유 있으면 더 보태면 좋은데, 지금은 뽀뽀하네요.” 조강래(업무) 사우회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후원금을 세 차례나 사우회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뵈었습니다.

“제 아이 혼인했을 때도, 발전기금 그런 걸 몰라 그냥 지나쳤어요. 속으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빗진 것처럼 생각했지요. 포도주는 드리기로 하고 드린 건데, 사우회에서 사례하시더라고요. **얼만지 몰라요. 받은 대로 드렸습니다.**” 장덕수 (편제) 사우회가 송년회 건배주로 후원한 포도주 50병 사례금 5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이준환(C&I)
1992년 입사.
경영지원센터 국장.
2022년 퇴사.



공형석(C&I)
1994년 MBC
프로덕션 입사.
드라마 촬영감독,
중계 카메라 감독.
2024년 퇴사.

시간안내

『영상제작기법』 - 촬영 현장의 모든 것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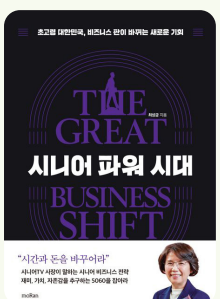
김종길 감독(편제)이 『영상제작기법』을 출간했다. 1982년 MBC에 입사해 40년 넘게 촬영 현장을 누빈 그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인, 카메라 기술, 앵글 설정, 특수 촬영 기법 등 영상 제작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감독은 “영상은 만국 공통어”라며, 기본기를 충실히 익히면 누구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상제작기법』은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도서출판 처음, 308쪽, 22,500원)

영상제작기법



『시니어 파워시대』 - 초고령 사회의 비즈니스 해법

최성금(관리)의 신간 『시니어 파워시대』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비즈니스 기회를 탐구한다. 저자는 키즈산업과 실버산업을 모두 경험한 경영인으로, 현재 ‘시니어TV’ 사장직을 맡고 있다. 트로트 열풍과 외국어 수업 등 시니어 소비가 만들어 낸 트렌드를 소개하며, 시니어 세대의 자아 실현과 시장 가능성을 조명한다. 『시니어 파워시대』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도서출판 모란, 248쪽, 18,000원)





“너의 처음이 나였으면 좋겠어”

MBC 금토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

2025. 01. 10.(금) 첫 방송 |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기획_장재훈 제작_문보미 극본_이서운 연출_김형민 이재진

이세영
나인우
최민수
김태형
최희진

MBC 드라마의 승기는 2025년에도 이어진다!

〈원더풀월드〉 〈우리집〉 〈수사반장 1958〉 〈백설공주를 위하여〉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지금 거신 전화는〉까지!
2024년 시청자를 열광케 했던 MBC 드라마의 열풍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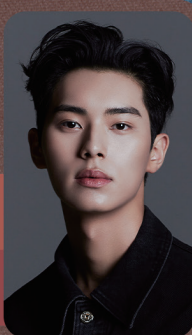
★ 2025 ★ LINE UP



언더커버 하이스쿨
서강준 주연
2025년 2월 첫 방송



바니와 오빠들
노정의, 이채민 주연
2025년 상반기



노무사 노무진
정경호 주연
2025년 하반기

